

《전쟁연습 중단하라!》, 《윤석열퇴진이 평화다!》

남조선 각계층의 반미, 반전, 반윤석열투쟁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역대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인 《울지 자유의 방패》를 개시한 지난 21일 부산의 미국령사관앞에서

는 부산시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윤석열이 (가치동맹)이라는 명분아래 미국의 신랄전대결의 돌격대노릇을 하고있으니 한반도의 앞

날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이 땅의 가장 큰 전쟁위협은 윤석열로서 윤석열과 같은 하늘아래 있는 평화는 지켜지지 못할것이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퇴진시키자》고 호소하였다.

한편 《부산대학생 겨레하나》 대표는 미국방성이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도가 미일남조선수뇌자회담에서 이에 대해 항의 한마디 하지 않는데 대하여 폭로하

면서 미국은 동해의 공식명칭을 《일본해》로 표기하며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에 날개를 달아주고 유사시 조선반도에 일본《자위대》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윤석열을 절대 인정하지 않음것이라고 성

토하였다. 다른 발언자들도 《울지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은 미국과 윤석열《정권》이 주장하는것처럼 《방어훈련》이 아니라 북침전쟁연습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더이상의 전쟁연습은 안된

다.》, 《윤석열《정부》의 대미굴종적태도, 대일굴욕외교, 대북대결정책을 단호히 배격하며 모든 위기사태의 지휘자 미국의 전쟁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사기자



일제가 음모적이고 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세상에 공포한 때로부터 1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호르는 세월은 많은것을 잊혀지게 한다고 하지만 일제가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은 오늘도 거대한 가슴마다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성나라의 칠삭둥이인 편하지 않았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던 국가실체로서의 조선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

일제는 국제조약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탄압해 짓밟은 협잡문서를 날조해놓고서는 우리 민족의 분노와 세계의 눈이 무서워 그로부터 한주일인 지난 8월 29일에야 공포하였다.

2009년에 《한일합병조약》의 조선어본과 일본어본이 한필체로 작성되었다는것이 밝혀진 사실, 조약을 《승인》하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 어새만 찍혀있고 황제의 서명이 없다는 사실들이 이 조약이 사기와 협잡, 강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불법비합의 협잡문서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일제의 특대형외약에 대해 조선봉건군가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은 림종전직에 《지난날의 《한일합병》인준은 강림(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 역적들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으로서 내가 한바가 아니다.》, 《《조약체결》 당시 일제는 나를 유배하고 협박했다.》라고 폭로하였다.

이처럼 비법적이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40여년간이나 동서고금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독압통치를 실시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떠선 우리 겨레를 100여만명이나 아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전쟁터와 공장장들에 내몰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가는데 등 전대미문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조선민족의 말과 글, 지어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없애 버리려고 날뛰었으며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자원을 파괴, 약탈하는 등 조선민족자체를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로 하여 조선사람 모두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울수 없는 가슴속아픔과 괴로운 한을 안고 살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8.15후에는 국토량탄과 전쟁참화 등 형언할수 없는 비극까지 겪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한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한일합병》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느니, 《조선에서 일본의 식민주주의는 인간적이였다.》느니 하는 꾀변으로 저들의 과거죄악을 감추어보려 하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과거거범죄에 대한 성근한 사회와 배상을 할 대신력사외곡과 군국주의부활, 제정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를 저들의것이라고 억지주장을 늘어놓는가 하면 이른바 《보통국가》의 미명하에 《평화헌법》개정과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윤석열역적패당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전쟁연습에 머리를 들이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이 모든것들은 성나라족속들이 또다시 괴로 일복진 침략력사를 되풀이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본사기자 림광훈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리전카르텔》, 《부페카르텔》들의 《《정부》보조금 불법류용》에 대해 떠들고있다고 한다.

얼마전에도 윤석열역도는 《《리전카르텔》, 《부페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 《카르텔》들은 교육단체, 노동단체, 진보적시민사회단체 등을 념두에 둔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느한 언론은 《《카르텔》은 독점이라는 의미를 가진 경제용어보다는 자신과 정치적대립관계에 있는 집단을 뜻하는것처럼 워한다. 그래서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셔야 한다.》는 윤(대통령)의 말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정적을 해치우겠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평하였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는 《민주로총》, 《한국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과 함께 《한국대학생진보련합》, 《전국농민회총련맹》, 《전국민중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의기억연대》 등 각계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

고있다. 생존권요구실현을 위해 시작된 이들의 투쟁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천민친일사대굴종장동과 전쟁대결,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고 역적패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반미, 반일, 반조선, 반윤석열투쟁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에 극도로 당황장조한 역적패당은 진보적시민사회단체들을 《국정방해세력》, 《귀족로조》, 《부페집단》, 《반국가세력》,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집단》으로 몰아대며 단체들에 대한 파쑈적탄압기도를 포괄적으로 드러냈다.

진보세력 말살을 노린 비렬한 술책

윤석열역적패당의 《보조금 불법류용》도 그 일환이라는것은 분명하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남조선언론과 전문가들이 주장하고있는것처럼 《보조금 불법류용》은 진보적시민사회단체들이 아니라 역적패당의 비호후둔과 조장을 받고있는 구유

《내가 불행하게 살고있기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 고싶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최근 남조선에서 사람들을 무력대고 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들의 강변이다. 불과 며칠전에도 서울 관악구 이마산에서는 30대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계속 등장하여 사회적불안과 우려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오늘 저녁 강남역 1번출구에서 칼부림왕국》, 《서울 강남역 린근 초등학교에서 8~13살 처녀를 성폭행하겠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남조선언론과 전문가들이 주장하고있는것처럼 《보조금 불법류용》은 진보적시민사회단체들이 아니라 역적패당의 비호후둔과 조장을 받고있는 구유

《내가 불행하게 살고있기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 고싶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최근 남조선에서 사람들을 무력대고 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들의 강변이다. 불과 며칠전에도 서울 관악구 이마산에서는 30대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계속 등장하여 사회적불안과 우려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오늘 저녁 강남역 1번출구에서 칼부림왕국》, 《서울 강남역 린근 초등학교에서 8~13살 처녀를 성폭행하겠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강력범죄사건들은 약육강식과 황금만능의 법칙이 지배하고 인간중요사상이 만연하는 남조선사회제도가 빚어낸 악재이다. 특히 윤석열역도의 무지무능과 특권층위주의 정치, 반인민적악정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땅구화는 더욱 심해지고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보다 격화시 키고있다.

남조선《경찰청》이 공식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살인, 폭행사건가운데서 《사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한 범죄물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은 언제 가도 소생할수 없고 조락하는 사회는 파국의 실연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 고있다.

《내가 불행하게 살고있기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 고싶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최근 남조선에서 사람들을 무력대고 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들의 강변이다. 불과 며칠전에도 서울 관악구 이마산에서는 30대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계속 등장하여 사회적불안과 우려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오늘 저녁 강남역 1번출구에서 칼부림왕국》, 《서울 강남역 린근 초등학교에서 8~13살 처녀를 성폭행하겠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강력범죄사건들은 약육강식과 황금만능의 법칙이 지배하고 인간중요사상이 만연하는 남조선사회제도가 빚어낸 악재이다. 특히 윤석열역도의 무지무능과 특권층위주의 정치, 반인민적악정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땅구화는 더욱 심해지고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보다 격화시 키고있다.

남조선《경찰청》이 공식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살인, 폭행사건가운데서 《사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한 범죄물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은 언제 가도 소생할수 없고 조락하는 사회는 파국의 실연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 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는 남조선을 지구상에서 강력범죄를 제일 높은 미국과 비교하며 비난

모수적인 단체들에서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한국자유총련맹》,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비롯한 보수성향의 《3개 관변단체》가 올해 받은 《보조금》은 수백억원, 지난해보다 수십억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건전제정》을 강조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예산과 다른 민간단체들의 《보조금》을 잘라버린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언론들은 윤석열과 《정부》가 《보조금 불법류용》과 《카르텔》에 대해 떠드는것은 파렴치한 망발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윤석열과 《정부》가 《보조금 불법류용》과 《카르텔》에 대해 떠드는것은 파렴치한 망발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특별치안활동》을 한다는 경찰이라는것들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내거나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지어 무한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념성들을 강간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치안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경찰을 믿고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겠는가, 경찰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구실로 반《정부》집회와 시위참가자들에게 총기를 사용할수 도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 《갈부림왕국》,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산생되는 암흑의 세상, 이것이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회색의 인력유린자들, 극악한 파쑈광들이 살판치고 악정과 독정이 란무하는 남조선사회의 단면이다. 지금 역적패당이 그 무슨 《범죄방지》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오물더미에서 장미꽃이 필수 없는것처럼 색은 정치가 지배하는 남조선에서 범죄방지, 범죄군벌이란 언제 가도 있을수 없다.

본사기자 김정혁

《여의도》의 진품경 - 책 입 공 방

《칼부림왕국》, 《갈부림왕국》의 암흑의 단면 세상